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5면)

“송파 문화·예술·관광, 성장동력화할 통합전략 필요”



전정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장 (방이1, 송파1·2동)

전정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장(방이1, 송파1·2동)은 “송파에는 석촌호수와 송리단길·방이맛골을 비롯해 전통시장과 공연·전시시설,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자원이 있지만 문화·예술·관광 관련 사업이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그 효과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문화와 예술이 방문의 이유가

되고, 관광이 체류를 만들며, 그 체류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송파형 문화·예술·관광 통합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체류시간과 이동동선·소비패턴을 분석하고, 방문객이 문화·예술과 관광명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자연스럽게 경험

할 수 있고, 또한 잠실MICE 참가자·공연 관람객·가족 단위 관광객·외국인 관광객 등 방문 목적에 따른 맞춤형 동선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문화·예술·관광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문화재단, 관광·상권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사업 추진부터 성과분석까지 협업하는 실질적인 통합 추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